

AB 순차통역 재표현 능력 강화를 위한 교수법 제안: CRIPD를 중심으로

임 순 정
(이화여대)

1. 서론

위키백과는 통역(通譯)을 ‘서로 통하지 않는 둘 이상의 언어 구사자 사이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여 그 뜻을 전해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하나 이상의 언어가 개입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통역사는 연사의 발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출발어(Source Language, 이하 SL) 이해력과 출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을 위해 이를 청중의 언어로 표현하는 도착어(Target Language, 이하 TL) 구사력을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 이는 통번역 교육 기관 입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야 하는 기본 능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론 및 실무 수업을 통해 통역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출발어 담화(Source Discourse)의 이해와 도착어 담화(Target Discourse)의 재표현은 순차통역 수행 시 언어 방향에 따라 어려움을 야기하는 정도에서 차

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연사의 발화를 외국어로 통역하는 AB 순차 통역 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착어 담화의 생산이다. 통번역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상당한 수준의 B언어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AB 순차통역을 진행하면서 출발어 담화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도착어로 재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본 논문은 AB 방향으로 순차통역을 진행할 때 학습자들의 재표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틀로서 과정 중심 문제해결보고서(compte rendu intégré des problèmes et décisions, 이하 CRIPD)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CRIPD는 번역 교육에 우선 도입된 교육 틀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번역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과 자료를 기술하게 하는 과제물이다¹⁾. 연구자는 2009년부터 CRIPD를 통역 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며, CRIPD 과제의 일환으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본인이 한 통역의 녹음을 들으며 자기 분석(self-analysis)을 실시하여 제출한다. 학습자들은 통역 녹음 파일을 듣고 전사한 다음, 자신이 통역한 내용을 원문과 비교 분석하고, 통역에 나타난 오류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오류가 발생했는지 생각하고 기술한다(임순정, 2019). 통역 교육에 적용하는 CRIPD에서 통역 과정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만일 다시 통역한다면 어떻게 통역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대안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통역에서 추가적인 기회란 존재하지 않지만, CRIPD에 대안을 기술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 시간에 통역할 때 통역적 어려움을 유발했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한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재표현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로 하여금 통역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²⁾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학습자들의 CRIPD 사례 분석에 앞서 AB 순차통역에서 재표현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찰한 다음 재표현 교육에 적합한 CRIPD에 기반한 교수 학습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질(Gile, 2004), 김대영(2015) 참조

2) 통역 오류 원인과 CRIPD의 역할에 대해서는 3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2. AB 순차통역에서의 재표현이란?

통번역 전문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통역 교육을 받기 시작한 초보 학습자의 상당수는 평상시 불어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를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B 순차통역을 하면서 각종 실수와 오류를 남발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거나 말을 더듬곤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외국어 발화 상황과 통역에서의 재표현 상황 간에 특별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통역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언어 간 소통행위인 순차통역의 경우, 통역사는 연사의 발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노트테이킹(Note Taking, 이하 NT)을 하는 출발어 담화 청취 단계와 이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표현하는 도착어 담화 발화 단계를 거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연사의 발언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역사는 담화를 구성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없으며 연사가 발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역사는 반드시 연사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주제 지식을 보유(셀레스코비치, Selescovitch, 1968: 109)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연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사의 발화가 끝난 다음 통역을 시작하는 순차통역의 특징으로 인해 원문에 보다 충실한 통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트테이킹을 기억의 환기 도구로 사용하면서 연사의 발화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존스(Jones, 2002: 35)는 통역사는 발화를 시작할 때 이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결과 순차통역의 발화 시간은 원문 대비 2/3 내지는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통역사가 연사의 발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 있게 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발어 담화 분석 및 이해, 노트테이킹(Note Taking, 이하 NT), 외국어 능력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2.1. 출발어 담화 이해 및 분석

통역의 출발점은 연사의 발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통역 상황은 연사의 발화를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통역하는 것이다. 질(Gile, 1995)과 셀레스코비치 & 르데레르(Seleskovitch & Lederer, 2002)는 통번역 교육 관련 저서에서 출발어 담화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통역에서 이해의 대상은 연사가 사용한 어휘나 언어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임을 강조한다. 아이디어란 설명, 주장, 설득 등 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며, 구체적으로 SL의 통사 규칙에 입각해 작성된 어휘의 연속체인 구와 절, 문장, 문단 나아가서는 출발어 담화의 형태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원문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발어 담화에 등장하는 어휘의 의미, 통사 규칙 등에 대한 언어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논리 전개 방식이나 담화 구조 등 SL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AB 순차통역의 경우, SL이 모국어이기 때문에 출발어 담화의 이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초기 통역 학습자들의 경우, 연사의 발화 속도에 맞추어 출발어 담화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역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민스, Minns, 2002). 통역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수동적인 이해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AB 통역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은 B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통역사가 원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일 수 있다. 독해의 경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읽거나 자기 속도로 읽을 수 있는 반면 원문 정보 입력을 자신의 속도로 조절할 수 없는 듣기를 기반으로 한 통역에서는 알고 있는 어휘라도 놓치고 못 듣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생소한 어휘(한자어, 고유명사, 신조어, 전문용어 등), 은유적 표현이나 관용적 표현 등은 아예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SL에 대한 언어적 지식은 원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언어란 의미와 개념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기 때문에 연사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 지식이 반드시 동반되어

야 한다. 연사의 아이디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흔히 전문 통역사들에게조차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제 지식은 통역 학습자들의 출발어 담화 이해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통번역 교육기관에서는 졸업 후 전문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접할 확률이 높은 분야인 경제, 사회, 문화, 안보, 환경, IT, 통신, 의학 등 시사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문학 전공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불 통역학과 학생들의 대부분은 시사적인 주제를 접할 때 생소하며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다. 통역 교육을 통해 시사적인 주제에 대한 지식의 양이 절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빨리 습득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SL에 대한 언어 지식과 주제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한 출발어 담화에서 전달해야 하는 대상이 연사가 사용한 언어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라는 것은 재표현 과정에서 통역사에게 상당한 자유를 제공한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표현 방식이 아닌 일정 범위 내에서 다수의 표현 방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³⁾. 학습자들에게 통역을 하면서 동의어나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 표현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에는 충실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통역에서 상위어를 활용하여 의미를 일반화시키거나 하위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는 이유는 통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담화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지 원문에서 사용된 언어 표현의 재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적의 표현을 찾는 과정에서 소통이 중단 또는 단절되는 것 보다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발음, 일정한 리듬, 설득력 있는 어조로 전달되는 것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자의 입장에서 통역사가 자신들과 소통하는 도착어 담화를 구현하는 연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역 학습자는 도착어 담화 생산 시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적절한 재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2. 노트테이킹(Note Taking, NT)

순차통역의 경우, 연사가 발화를 마친 다음에 통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통역

사가 원문을 이해한 다음 TL로 재표현하기까지 시간 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문 정보의 누락, 변형 등을 방지하고 출발어 담화에 충실한 도착어 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습득하는 기술이 바로 노트테이킹(Note Taking)이다. NT는 연사의 발화를 이해한 다음 이를 분석해서 기재한 내용으로 통역사가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통역사가 환기해야 하는 기억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사가 발화한 아이디어이며, NT는 원문 청취 시 통역사가 이해한 아이디어를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함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메모이다.

문제는 순차 통역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NT이 초기 통역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차 통역 과정을 출발어 담화 청취 단계와 도착어 담화 발화 단계로 구분할 때, NT는 출발어 담화 청취 단계에서 출발어 담화 분석 및 이해, 단기 기억 저장, 조율, 도착어 전환과 함께 이루어지는데⁴⁾,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 능력(Effort)⁵⁾을 조율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NT을 하기 전에는 원문을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던 학습자들이 NT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원문의 주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논리적 연결 고리를 놓치고 재구성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오류 양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순차통역 AB와 관련해서 초기 학습자들은 SL로 NT를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⁶⁾, 이는 도착어 담화 발화 단계에서 재표현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착어 담화 발화 단계에서 NT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어의 어휘 및 구조로 인해 재표현 시 언어 간섭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TL로 NT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발어 담화 청취 단계에 언어 전환이라는 활동이 추가되면, 제한된 수행 능력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조율의 어려움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역 교육 시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이해하고 분석된 아이디어를 노트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재표현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료하고 체계적인 노트를 구현하도록

4) 임순정(2019) 참조

5) Gile(1995) 참조

6) 임순정(2017) 참조

3) 질(Gile 1995) 참조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NT되지 않은 내용과 디테일이 재표현 시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재하는 NT의 기본 기술의 습득과 수행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NT에 기재하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거나 머릿속에 기억하는 내용을 NT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통역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NT이 작성되어야 만이 언어 간접 현상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재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NT 기재 방식에 대한 지도는 필수적이다.

2.3. 외국어 능력

국제회의통역사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 AIIC)에서는 B언어를 모국어가 아님에도 통역사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시 도착어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이는 B언어를 모국어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는 없으나 해당 언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보유한 언어라고 규정한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1968: 128)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1968)는 정보의 형태를 재구성할 시간이 주어지는 순차통역에서는 B언어로의 통역이 문제되지 않지만 동시통역에서는 일부 어색한 외국어 언어 표현을 상쇄할 정도의 수준, 지능, 경험을 보유해야 만이 명료한 통역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시통역 진행 시 각각의 통역사가 모국어 방향으로 통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파트너를 섭외하는 유럽의 전통과 달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프랑스인 전문 통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어-프랑스어 언어 조합 내에서는 한국인 통역사들이 양방향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통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B언어의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현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Gile 1995)은 서구의 통번역 교육기관의 대부분은 입학 시 언어 구사력이 완벽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 과정 중 시행되는 언어 강화 훈련은 국제 회의 관련 표현 및 전문용어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의 부족한 B언어 능

력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내 통번역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학습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B언어 능력의 부족과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 민감도의 부재는 통역 기술 습득과 통역 능력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통번역 교육 기관에서는 ‘고급B언어’, ‘B언어숙달’, ‘작문’, ‘B언어주제발표’ 등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여 유형별 텍스트 강독, 국내외 주요 시사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텍스트 분석, 따라쓰기, 바꿔쓰기, 요약 등 글쓰기 논리와 체계를 갖추기 위한 훈련 등을 통해 B언어 구사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통번역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B언어 능력 강화 수업은 학습자들이 통번역 대학원 입학 전에 경험해 온 언어 수업의 심화 과정에 가까운데, 이 같은 방식으로 B언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AB 순차통역 시 재표현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AB 순차통역을 수행할 때 학습자들은 통역하기 시작하면 아는 표현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불어로 토론할 때와 달리 말문이 막힌다 등의 고민을 자주 토로한다. 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발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상황과 연사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해야 하는 통역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려한 불어 실력이 반드시 유려한 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말하는 ‘아는 표현’이나 ‘평상 시 사용 가능한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읽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표현,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표현 등 수동적 이해에 국한된 외국어 능력은 AB 순차 통역 수행 시 흡족한 재표현을 구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연사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머뭇거리거나, 반복해서 수정하거나, 장황하게 돌려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부족한 외국어 구사 능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국어로의 통역을 실시할 때 요구되는 B언어 수준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외국인 성인이 구사하는 자연스럽고 정확한 언어 표현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Gile 1995)이 제안하는 ‘언어적 가용성에 대한 중력 모

7) AIIC(<https://aiic.net/>) 참조

8)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http://gsti.ewha.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http://gsit.hufs.ac.kr/>) 참조

텔(Gravitational Model of linguistic availability)'은 통역 학습자들이 자신의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개념이다. 언어적 가용성에 대한 중력 모델은 핵(Nucleus), 능동 영역(Active Zone), 수동 영역(Passive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어휘와 통사 규칙은 핵 주위의 궤도를 맴도는 불변 요소이며, 수동 영역에는 이해 가능한 어휘와 언어 규칙, 능동 영역에는 담화 및 텍스트 생산 시 사용 가능한 어휘와 언어 규칙이 존재한다. 능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외국어의 수준이 관건인 AB 순차통역에서 재표현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능동 영역에 위치한 언어 표현의 양적 질적 수준일 것이다. 능동 영역의 양적 질적 확장은 B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정독과 TV 및 라디오 청취 등 수동적 언어 훈련을 비롯해 전문 용어 및 관용적 표현 암기, 웨딩, 씨치 & 디스트로이(Search & Destroy)⁹⁾ 등 다양한 언어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

B언어 능력 강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수동 영역, 능동 영역, 핵을 구성하는 어휘와 표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수동 영역에 포함된 어휘는 능동 영역에 포함된 어휘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어야 하며 수준이 높아야 한다. 전공 외국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어휘의 가용성(availability)을 높여야 만이 능동 영역 및 핵을 구성하는 언어 표현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역에서 다루는 분야가 매우 방대하므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언어 표현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언어 표현을 습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3. 통역 교육과 CRIPD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차통역에서 재표현은 외국어 능력 향상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 지식 및 출발어 지식 강화를 통한 원문 이해

9) 임순정(2014)는 씨치 & 디스트로이(search & destroy)란 시사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 적당 분량을 5회 큰 소리로 읽고 난 뒤 기사 내용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재현하는 연습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및 분석 능력, 노트테이킹(NT) 기술, 멀티테스킹 능력 및 조율 능력 등 출발어 담화 청취 단계와 도착어 담화 발화 단계에 관련된 다양한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의 통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해 통역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의도적 연습(deliberate practice)¹⁰⁾을 병행해야 만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통역 능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CRIPD는 학습자가 통역을 수행하면서 겪는 문제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코멘트 형식으로 기술하므로 교사가 학습자의 통역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CRIPD의 분석 사례를 통해 CRIPD가 통역 능력과 재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3.1. CRIPD 분석 사례

본 연구는 2016년 1학기-2학기에 진행한 순차통역 AB 수업과 2017년도 1학기에 진행한 사회문화통역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 5명의 과제물을 1년 반에 걸쳐 수집한 다음 관찰하였다. 사회문화통역 수업은 AB, BA 양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B 방향의 과제물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수강자는 전원 자신이 수업 시간에 실시한 통역에 대해 CRIPD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통역 음성 파일을 다시 듣고 모니터링 한 다음 통역 오류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작성 방식은 학생의 자율에 맡겨졌다. CRIPD는 번역 과제가 아니므로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철자법 관련 오류는 지적하지 않았다. 학습자가 제시한 대안에 여전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교사는 이를 밑줄 쳐서 지적하고, 필요 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학습자가 재표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은 CRIPD의 분석 결과¹¹⁾이다.

10) 의도적 연습이란 특정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 실시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체계적인 연습을 의미한다.

11) 학습자들은 한 개의 예문과 관련된 피드백에서 원문 이해 및 분석, 노트테이킹(NT), 외국어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해당 예문에서 다수의 통역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오류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해당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3.1.1. 원문 이해 및 분석 관련 재표현 오류

<원문 1>

매일 매일의 취침과 기상시간을 체크한 뒤 취침시간 또는 기상시간의 차이가 1시간 이내라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2~3 시간의 차이가 난다면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야 한다.

<통역>

Donc le temps de se réveiller et de se coucher... s'il y a un décalage à moins d'une heure, ça ne pose pas de problème. Mais le décalage augmente à deux ou trois heures, c'est une insomnie.

<자기평가>

- 우선, 원문을 들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음. 즉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남았지만 앞부분과의 연결이라든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들으면서 바로 와 닿지 않았음. 그래서 통역을 할 때, 몇 가지 핵심어를 던지기는 했지만 나 스스로가 이 문장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발화를 망설이다 결국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음.

- 솔직히, 글로 몇 번 읽어봐도 이 텍스트가 나에게서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중략] 개인적으로는 불어로 바꾸기가 어렵고 확신이 들지 않는 문장임.

<대안>

Pour savoir si l'on est atteint d'insomnie, il faut d'abord enregistrer l'heure de lever et de coucher tous les jours. Après une certaine période de temps, s'il y a le décalage à moins d'une heure dans les horaires enregistrés, soit de lever ou de coucher, ce n'est pas un problème préoccupant. Mais s'il y a deux ou trois heures de décalage, dans ce cas-là, c'est une insomnie.

위의 예문은 원문 아이디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 증언부연 통역한 예이다. 학습자의 자기평가 피드백을 보면 원문을 구성하는 핵심어는 파악했지만 핵심어의 논리적 연결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CRIPD는 교사로 하여금 통역 결과물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에 파악하기 어려운 통역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통역 오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

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CRIPD 과제를 통해 학습자가 여전히 해당 예문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교사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언(2)을 제공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원문 2>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은 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의 21%에 달하며, 이들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 손실분은 무려 6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역>

A cause de cela, les femmes ayant interrompu leur carrière reste 21% de la population active. On estime également les dégâts liés à ce phénomène s'élève à 60 billions de won.

<자기평가>

생산가능 여성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혼동되었다. 통역 상황에서 용어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 것이다.

<대안>

Les femmes qui ont renoncé à leur activité économique suite à la grossesse et de l'accouchement représentent 21 % des femmes en âge de travailler. Et on estime que la perte de revenu du travail due à leur inactivité s'élève à soixante billions de won.

<원문 3>

GMO 작물이 생태계의 순환구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슈퍼 잡초, 슈퍼 해충의 출현, 그리고 생물 다양성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통역>

De plus cette technologie pourrait perturber l'écosystème. Avec les herbes

12) <예문 1>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Etablir un horaire pour le lever et le coucher et, si possible, le respecter également durant les week-ends. En cas de difficulté à le suivre à la lettre: éviter de s'en écarter de plus d'une heure au coucher et de plus de deux heures au réveil. De plus, ne pas se permettre des écarts fréquents pour plus de deux nuits consécutives. 표현 참고하세요, un décalage des horaires de sommeil et des moments d'éveil 그리고 le rythme circadien의 개념을 찾아보세요.

et les insectes ravageurs, la biodiversité est menacée et ce sera une catastrophe irréductible.

<자기평가>

‘슈퍼 잡초’, ‘슈퍼 해충’, ‘생물 다양성 파괴’ 이 세 가지가 모두 병렬로 연결된 문장이었는데, 청취하면서 앞의 두 가지를 원인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생물 다양성 파괴’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문과는 조금 다른 문장 구성으로 통역이 나왔다.

<대안>

Il y a aussi des gens qui craignent que les OGM perturbent l'écosystème. Selon eux, l'apparition des herbes et des insectes ravageurs ainsi que la destruction de la biodiversité seront une catastrophe(이 문장구조에서 이 단어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원문의 의미가 전달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irréversible.

<원문 2>와 <원문 3>은 <원문 1>과 달리 주요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핵심어나 문장 구조의 분석에 실패한 경우이다. 이렇듯, 원문의 이해 및 분석은 주요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어 및 연결 고리의 분석이 요구된다.

3.1.2. 노트테이킹 관련 재표현 오류

3.1.2.1. 핵심어 누락

<원문 4>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GMO 옥수수를 먹인 쥐의 신장이 작아지고, GMO 콩을 먹인 쥐의 사산율이 56%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대표적입니다.

<통역>

Aujourd'hui, on a de plus en plus d'études qui dénoncent les risques potentiels des produits d'OGM. Par exemple, une étude nous montre que des souris nourries de maïs transgéniques a des problèmes de reins et le taux de mortalité a augmenté de 56%.

<자기 평가>

연구 내용에서 ‘GMO 옥수수’는 듣고 노트를 했는데 ‘GMO 콩’의 경우는

들었는데도, 연사 발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미처 노트하지 못했고, 통역 시에도 아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보가 누락되었음은 물론, 각각의 실험 결과를 밝혀줘야 하는데 하나의 실험결과로 통역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역시나 경제적이면서도 정확한 노트의 방법 개발과 연습이 필요하다.

<대안>

Aujourd'hui, il y a de plus en plus d'études qui dénoncent les risques potentiels des produits d'OGM. Les exemples les plus représentatifs sont des souris ayant des reins rétrécis après avoir ingéré du maïs transgénique et d'autres affichant un taux de mortalité de 56% après avoir été nourries avec du soja transgénique.

<원문 5>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성폭력에 노출됩니다.

<통역>

Pendant la guerre, les femmes et les filles sont exposés à plusieurs risques.

<자기평가>

- 기호 없이 ‘여성’, ‘소녀’라고 한글로 또박또박 적으라 ‘무엇에’ 노출되는지 노트할 시간 없었음.

- 노트에는 없더라도 텍스트 전체 흐름상 여성과 소녀가 ‘성폭력’에 노출된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임. 하지만 발화 시에는, 앞에 날려버린 표현 때문에 당황한 상태이거나 뒤어 나올 내용을 눈으로 읽는 중이라 정신이 없음. 떠오르는 대로 말하게 됨.

<대안>

En temps de guerre, de nombreuses femmes et filles sont exposées à la violence sexuelle.

구어로 발화되는 원문을 들으면서 모든 어휘를 노트테이킹(NT)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핵심어 위주로 기재해서 전체 아이디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며, NT한 내용과 통역사의 머리 속에 저장된 내용이 정보의 양과 정확도 면에서 원문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때로는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 중 한 단어만 노트하더라도 나머지 정보가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원문 4>와 <원문 5>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통역 교육 초기에 상당수의 학습자들은 NT하지 않은 내용을 기억하기 힘들어 하며, 이는 재표현에서 의미의 심각한 왜곡 또는 누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별로 적절한 NT의 분량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NT한 내용과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연계하여 재표현하는 연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3.1.2.2 부정확한 핵심어

<원문 6>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사물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통역>

Pour les objets connectés, le clé est la technologie d'Internet. L'Internet permet aux objets de communiquer entre eux et de traiter les informations.

<자기평가>

본문의 사물인터넷을 인터넷이라고 노트함. ‘핵심, 인터넷, 정보 교환 및 처리, 사물(*) 간’이라는 노트를 보며,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인터넷이라고 생각.

<대안>

L'échange et le traitement de données entre les objets est au coeur de l'Internet des objets.

<원문 7>

첫째로, 저는, 육아휴직제도는 사실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민간 기업에서는 이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역>

Premièrement, on a déjà beaucoup parlé de congé maternité. Mais les coréens qui travaillent dans une entreprise privée n'ont pas eu recours à ce politique.

<자기평가>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노트가 잘못되어서 (한자로 有를 쓰려다가 必을 써둬) 통역도 잘못 나왔다.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기에 사용을 못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통역이 잘못 되었다.

<대안>

Tout d'abord/ Premièrement, je voudrais souligner le fait que même si le congé parental existe déjà depuis longtemps. Mais en réalité, surtout dans les entreprises privées, on n'ose pas le prendre(par crainte d'être mal vu).

위의 예문들은 원문에 등장하지 않는 어휘를 노트하여 재표현 시 통역 오류가 발생한 예이다. NT에 기재된 내용이 원문에 충실해야 만이 출발어 담화를 환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NT의 목적이 충족될 수 있고, 성공적인 통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NT된 내용은 NT의 분량 못지않게 중요하며, NT을 습득하는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노트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재표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노트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재표현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면서 노트할 수 있도록 NT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3.1.2.3. 노트 리딩

<원문 8>

잠에 대한 정보와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상쾌한 아침을 여는 숙면 기술을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통역>

Donc, aujourd'hui, je vais vous donner des informations sur le sommeil surtout l'information pour le sommeil de qualité et pour éviter l'insomnie.

<자기평가>

숙면 기술이라고 쓴 노트를 못 알아보고 정보로 바뀌어서 얘기하고 나서보니 뭔가 부족해서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어졌다. 하지만, 명사(잘못 사용)/ 동사를 나열해서 의미전달이 불명확해졌다.

<대안>

Je vais vous donner des conseils utiles pour bien dormir et bien se réveiller, en particulier pour ceux qui souffrent de l'insomnie et du manque de l'information.

위의 사례는 핵심어를 노트했음에도 불구하고 NT 해독에 실패하여 통역 오

류가 발생한 사례이다. NT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누락시킬 수밖에 없고 학습자의 심적 불안은 해당 구문 외에 연결되어 나오는 구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통역 오류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원문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 한 눈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NT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며, NT 리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3.1.3. 외국어 관련 재표현 오류

3.1.3.1. 어휘

<원문 9>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돌리거나 건물의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통역>

Si l'on chauffe de l'eau, ça génère de l'électricité. Avec ces énergies, on peut faire des électricités ou bien réchauffer des habitations.

<자기평가>

- 'chauffer' 동사와 'réchauffer'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숙지하지 못한 탓에, 사용에 오류를 범했다. 단어와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더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

<재표현>

Avec l'énergie solaire on peut chauffer l'eau pour faire fonctionner les centrales électriques ou pour chauffer les bâtiments.

<원문 10>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지쳤다면서 더 이상 이력서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구하기를 포기한 셈입니다. 김씨는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통역>

Et depuis quelques mois, il a fini par renoncer à trouver un emploi. Est-il chômeur?

<자기평가>

chercher와 trouver 의미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음.

<대안>

Il était tellement épuisé qu'il a arrêté d'envoyer son CV depuis quelques

mois. Il a renoncé à chercher un emploi. Cet homme est-il un chômeur ou pas?

위의 예문들은 재표현 시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들이다. 앞서 2.3에서 질(Gile 1995)의 '언어적 가용성에 대한 중력 모델(Gravity Model of linguistic availability)'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수동 영역에 위치한 어휘와 달리 능동 영역에 위치한 어휘는 정확히 학습되고 숙지되어야 만이 틀리지 않고 구사할 수 있다.

3.1.3.2. 통사 규칙

<원문 11>

1900년대 초 지구촌 전체 인구가 16억 명이었으니 100년 동안 4배 이상은 셈입니다.

<통역>

Et au début de 20^e siècle, ce n'était que 1,6 milliards. Et il a donc quadruplé en 100 ans.

<자기평가>

관사를 안 쓰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일까...위의 문장을 받는 주어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 문장 주어 역시 잘못됨. 숫자 말하는 데에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 숫자가 나열된 문장을 읽을 땐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말을 해 보니 굉장히 당황하게 됐다. 특히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대안>

- Etant donné que au début du 20^e siècle, elle n'était que 1,6 milliards, elle a donc quadruplé en 100 ans.

- Si on compare avec la population du début du 20^e siècle qui était de 1,6 milliards, on a connu la multiplication par quatre en 100 ans.

위의 예문은 식량 부족과 관련된 담화에서 세계 인구의 증가 현상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통역을 구성하는 두 문장의 주어가 'la polulation mondiale(세계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어는 'il'이 아닌 'elle'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제 작성 과정에서 학습자도 충분히 인지했고,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안에서 새로운 오류(두 단어 사이에 모음충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앞 단어의 마지막 모음을 삭제하지 않았고, 아포스트로피 사용이 누락되었으며, connaître une multiplication par의 표현에서 관사 오류가 발견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여전히 한국어 문장 구조에 지나치게 충실하게 통역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의 정보를 보다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도차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La population mondiale qui au début du 20ème siècle était de 1.6 milliards a été multipliée au moins par quatre en l'espace de 100 ans.” 정도로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학습자가 제안하는 대안에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분명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CRIPD는 교사로 하여금 현 시점에서 학습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국어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1.3.3. 관용적 표현

<원문 12>

잠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인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이다.

<통역>

Le matin, on parle souvent "Vous avez passé la bonne nuit".

<자기평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인사’를 표현할 불어를 찾지 못해서, on parle souvent으로 표현했고, la bonne nuit가 아니라 une bonne nuit가 적절한 표현이다.

<대안>

Quand on vient de se réveiller, on dit souvent "Vous avez passé une bonne nuit?/Vous avez bien dormi?"

위의 예문에서 학습자는 자기평가 코멘트에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아침에 하는 간단한 인사말을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인지 관용적 표현에서 관사 오류가 발생하였고, 관용적 표현

을 도입하는 문장에서 동사 선정이 부자연스럽다. 이렇듯, 관용적 표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해당 표현 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인사, 속담, 사자성어 등 여러 단어가 결합하여 원래 단어가 갖는 뜻과 별개의 뜻을 지니게 되는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 숙지가 선행되어야 만이 통역 시 안정적인 재표현이 가능하다.

3.1.3.4. 전문 용어

<원문 13>

사물인터넷 시대엔 센서와 빅데이터가 일을 하는 주체이므로 정작 사람의 할 일은 줄어들다. 실제로 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하이패스 보급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 유인 요금소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통역>

Dans l'ère de l'internet des objets, ce sont le capteur et le Big-Data qui travaillent, pas les hommes, C'est-à-dire que, les travail des hommes diminuera de plus en plus. Selon le Ministère du transport, d'ici 2020, le taux d'équipement de Hi-pass atteindra à 80%.

<자기평가>

- ‘일자리가 줄어들다’는 의미에서는 ‘travail’ 보다 ‘emploi’를 사용해야 의미가 정확했을 것임

- 교통부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하이패스 보급률에 대한 것은 간신히 전달을 하고, ‘유인 요금소’에 대한 부분을 순간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의미상으로 큰 누락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넘어갔지만, 적절한 표현을 다시 찾아서 공부해야 함. 여러 프랑스어 사이트에서 찾아 본 표현 중에 ‘éliminer les emplois d'encaisseurs aux guichets’가 있었는데, 결론은 같을지라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므로 ‘supprimer les postes de péage traditionnels’을 생각해 봄

<대안>

Dans l'ère de l'internet des objets, ce sont les capteurs et le Big-Data qui travaillent, alors, les emplois diminueront progressivement. Le Ministère du transport a annoncé son projet d'augmenter le taux d'équipement de High-pass à 80 % et de supprimer les postes de péage traditionnels.

전문 용어는 관용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된 상태라면 별 문제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등가어를 모르거나 통역하는 순간 떠올리지 못하게 되면 통역 과정에서 상당한 수행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위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부분을 처리하는데 다행히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부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결된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오류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 용어 역시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숙지되어야 한다.

3.1.4. 기타 재표현 오류

3.1.4.1. 언어 간섭

<원문 14>

어쩌면 생활의 일부로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 잠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지 모른다.

<통역>

Le sommeil est une partie de vie. Comme le sommeil est une partie de vie et la vie quotidienne, on souvent ignore son importance.

<자기평가>

생활의 일부분을 직역해서 비문이 나왔고, souvent의 위치가 잘못되었다. 직역인데다가 어색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안을 찾지 못했다.

<대안>

Comme le sommeil fait partie de notre vie et il se répète tous les jours, on a tendance à négliger son importance/ sa valeur.

<원문 15>

알레르기 유발, 항생제 내성 등 GMO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역시 제기되고 있죠.

<통역>

Et aussi des risques pour la santé de l'homme. Parce que ça peut provoquer des allergies ou la résistance aux antibiotiques.

<자기평가>

원문을 이해했기 때문에 불어로 발화를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표현이 부정확했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못했다. 사전에 주제 관련 어휘와 표현을 숙

지하는 것은 물론, 듣고 받아 적은 한국어 순서대로 발화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프랑스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야 한다.

<대안>

L'apparition d'allergies et la résistance aux antibiotiques sont souvent autant de dangers potentiels pour le corps humain que les OGM peuvent présenter

한국어와 프랑스어는 어순을 비롯해 언어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원문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순서 및 방식에 집착하면서 재표현을 하게 되면 비문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문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이를 도착어 규범에 맞추어 표현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1.4.2. 조율 및 통제

<원문 16>

곡물 소비량의 3분의 2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GMO는 논의 대상입니다.

<통역>

Surtout en Corée, on est très dépendant de l'importation des céréales. Il est indispensable de lancer un débat sur ces sujets très sensibles.

<자기평가>

- 3분의 2라는 수치를 청취도 하고 노트도 했지만, 표현을 이미 'très dépendant de l'importation'으로 도입하고 나니 뒤에 정보를 추가하기가 어려워서 누락시키게 되었다.

- 원문에 '논의 대상'으로 정도로 표현된 내용을 불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입에서 나오기 편한 대로 발화가 되느라 내용이 왜곡되었다.

<대안>

Comme la Corée est un pays qui importe 2/3 des céréales qu'il consomme(더 간단하게), les OGM font souvent l'objet d'un débat.

<원문 17>

영국은 자국의 다음 세대와 유럽, 세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통역>

Peut-être, le Royaume-Uni n'a pas dû choisir le départ de l'UE.

<자기평가>

- 연사가 이야기할 때 조건법을 사용해야 겠다고 생각은 했음. 발화시에는 왜 나오지 않았나 싶음.

- 이미 말한 문장의 마지막에 'en tenant compte'를 붙이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순간 고민함

<대안>

- Peut-être le RU aurait-il dû s'abstenir de quitter l'UE en tenant compte de son impact sur la génération future, sur l'Europe et sur le monde.

- Compte tenu de ses générations futures et les impacts du Brexit sur l'Europe et le monde entier, il n'aurait pas dû choisir le dé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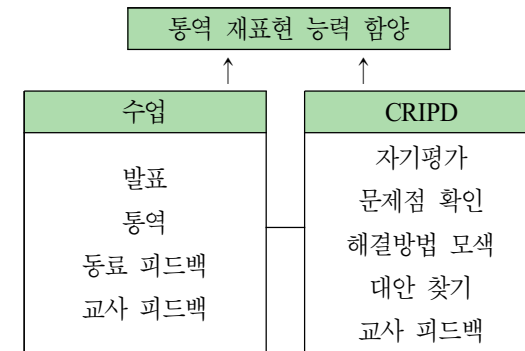
위의 예문들은 학습자가 원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노트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전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국어 표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이다. <원문 16>의 통역은 재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발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원문 17>은 재표현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도착어 표현을 순간적으로 동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표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듯, 통역은 이해력, 외국어 능력, NT 능력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통역하는 순간 이를 동원하고,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3.2. CRIPD를 활용한 교수 학습 모델

학습자들이 작성한 CRIP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AB 순차통역 도착어 담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는 단순히 외국어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외국어 능력을 비롯해 출발어 담화의 이해 및 분석, NT 기술, 조율, 기억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수업 시간 중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다수의 학습자의 통역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통역 과정보다는 결과물 중심으로 피드백과 코멘트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간혹 학습자로 하여금 어떠한 통역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게 하지만 학습자 마다 통역 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게 되면 피드백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통역 수행을 확인할 시간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경우, 교사는 학습자의 통역 결과물을 통해 통역 과정을 유추하면서 지도하게 된다. CRIPD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통역 과정에 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통역 결과물 및 통역 과정에 대해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통역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과정에서 통역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며, 원문, 주제 지식, 등가어, NT, 기억, 조율, 시간 압박 등 다양한 변수가 최대한 제거 된 상황에서 출발어 담화를 오롯이 도착어 담화로 전환해봄으로서 자신의 B언어 표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통역에서 요구되는 표현력은 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도착어의 규범 간의 조율이 필요한데, CRIPD 과제를 수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B언어 표현력에 대한 감각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CRIPD는 통역 수업을 보완하는 교육 툴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CRIPD를 활용한 교수 학습 모델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림 1> CRIPD를 활용한 교수 학습 모델



4. 결론

학습자들의 CRIPD를 중심으로 순차통역 AB에서의 재표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재표현이라는 것은 외국어 표현 능력 뿐만 아니라 원문에 대한 이해력 및 분석력, 안정적인 노트테이킹 기술을 바탕으로 통역 과정 전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역 학습 초기 학습자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AB 순차통역에서 재표현의 어려움을 단순히 외국어 실력 부족으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학습자들의 CRIPD에서도 드러났듯이 학습자들의 부족한 외국어 실력이 AB 순차통역에서 부정확하고 부자연스러운 재표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원문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착어로의 재표현을 제안할 수 있는 CRIPD 작성에서 여전히 외국어 표현 관련 오류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다만, 통역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학습은 어휘와 문법 규칙의 암기가 아닌 언어의 사용 관습에 초점을 맞춘 언어 학습을 통해 원어민이 들었을 때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국어 표현을 구사하면서 정확한 발음, 적절한 어조, 자연스러운 인토네이션과 속도로 자연스러운 화술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 틀로서의 CRIPD는 교사로 하여금 학습자의 인지적 접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역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보다 정확한 맞춤식 조언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지적인 요소가 혼재된 통역 결과물과는 달리 CRIPD에 기재된 대안은 학습자의 전공 외국어 실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이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교사는 개별 학습자의 특징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통역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진단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통역 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통역 과정에 대한 이해도 개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도적 연습을 통한 통역 학습의 능률을 도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통역 능력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옥동 (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대영 (2015) 「프랑스어 학습자의 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적 접근」, 『프랑스어문교육』 51: 7-47.
- 김은정 (2018) 「대학 교양 프랑스어 교육 현황 고찰」, 『Language Research』 54-1: 125-156.
- 이지민 (2015) 「통역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용 툴 개발 제안」, 『번역학연구』 16(5): 113-134.
- 임순정 (2010) 「학습자의 자기성찰 능력 증진을 위한 문제 해결 통합보고서 활용에 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8(2): 25-43.
- 임순정 (2014) 「통역 학습자들의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분석」, 『번역학연구』 15(5): 181-220.
- 임순정 (2017) 「통역 학습자의 노트테이킹 분석 및 교수법 제안」, 『통역과 번역』 19(1): 113-138.
- 임순정 (2019) 「CRIPD 분석을 통한 통역 학습 자가평가 도구의 제안: AB 순차통역 체크리스트」, 『프랑스어문교육』 64: 63-89.
- 정혜연 (2013) 「전문통역사의 어휘능력-통역능력 습득에 대한 경험연구」, 『번역학연구』 14(1): 331-353.
- 정혜연 (2016) 「패러프레이즈 능력과 통역 전문성의 연관성」, 『번역학연구』 17(2): 119-140.
- Albl-Mikasa, M. (2013). 'Developing and Cultivating Expert Interpreter Competence'.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17-34.
- Gile, D. (1990). 'La traduction et l'interprétation comme révélateurs des mécanismes de production et de compréhension du discours'. *Meta* 35 (1): 20-30.
- Gile, D. (1992). 'Les fautes de traduction: une analyse pédagogique'. *Meta* 37(2): 251-262.
- Gile, D.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le, D. (2001). 'L'évaluation de la qualité de l'interprétation en cours de formation'. *Meta* 46(2): 379-393.
- Gile, D. (2004). 'Integrated Problem and Decision Reporting as a Translator Training Tool'.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n°2: 2-20.
- Jones, R. (2002)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Rydning, A. F. (2008). 'La démarche de l'expert-traducteur face à un problème de reformulation'. *Meta* 53(4): 748-764.
- Lederer, M.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Le modèle interprétatif*, Paris: Hachette.
- Lim, HO. (2008). 'Effectively Delivering the Message'. *통역과 번역* 10(2): 155-174.
- Minns, P. (2002). 'The Teaching of Interpreting into B-Some Conclusions Gathered from 25 Years' Training Experience'. *통역과 번역* 4(2): 29-40.
- Seleskovitch, D (1968). *L'Interprète dans l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problèmes de langage et de communication*, Paris: Lettres Modernes.
- Seleskovitch, D & Lederer, M. (2002). *Pédagogie raisonnée de l'interprétation*, France: Didier Érudition.
- WOROCH, J. (2010) *La reformulation comme fondement de l'interprétation de conférence*. Thèse de doctorat. Poznan : Adam Mickiewicz University.

<인터넷 자료>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

<https://aiic.net/>

나무위키

<https://namu.wiki/>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Abstract]

IPDR as an Interpreter Training Tool to Enhance the Reformulation Competence in AB Consecutive Interpretation

Lim, Soon Jeu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training model to enhance students' reformulation competence of Consecutive Interpretation AB. The analysis of five students' IPDR(Integrated Problem and Decision Reporting) performed as homework for Consecutive Interpretation AB I/II and Specialized Interpretation(Social Affairs/Culture) was proceeded and the result was categorized in terms of comprehension & analysis of source text, note-taking and foreign language expression. To develop the reformulation competence, students need to self-evaluate their interpretation performance in terms of interpretation process and correct their fault in order to find the balance between the fidelity of source discourse and the norm of target discourse. To this end, the author proposes an integrated training model based on IPDR to coordinate the teaching in the classroom and students' learning activities.

▶ Key Words: Reformulation, AB Consecutive Interpretation, IPDR(Integrated Problem and Decision Reporting), Gravitational Model of linguistic availability, Teaching and learning Model

▶ 주제어: 재표현, AB 순차통역, 과정 중심 문제해결보고서, 언어 가용성에 대한 중력 모델, 교수 학습 모델

임순정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soonjeunglim@gmail.com

관심분야: 통역 교육, 외국어 교육, 기계 번역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6일